

최인훈 소설의 탈식민주의적 고찰

조 보 라 미*

1.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론

본고는 탈식민주의적 관점으로 최인훈 소설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유사한 관점은 최인훈 소설과 정치와의 관련성을 논하는 평문에서 행해진 바 있는데, 『회색인』을 대상으로 한 등장인물의 정치의식 분석¹⁾은 본고의 관점과 유사하나, 탈식민주의적 자의식 없이 쓰여졌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김치수 역시 『회색인』과 『서유기』를 대상으로 한 글에서 최인훈이 '제 땅에서 제 사람이 살' 수 없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구적 방법론과 전통사회의 속성이 악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²⁾ 그러나 이것 역시 언급에만 그칠 뿐 더 이상의 논의가 나아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인훈 소설을 탈식민주의적으로 고찰할 때 이는 비단 위 두 작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이 논의 역시 전통 논의로만 수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탈식민주의란 외면적으로 식민주의 시대가 종결된 이후에도 여전히 제국주의의 지배가 계속됨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식민주의 시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국주의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모든 문화를 통칭한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1978)을 그

* 박사과정

1) 유종호, 「소설과 정치적 함축—〈광장〉과 〈회색인〉의 경우」, 『세계의 문학』, 1979. 가을.

2) 김치수, 「지식인의 망명—〈회색인〉·〈서유기〉를 중심으로」, 문학과지성, 1971.9.

시작으로 보는데, 그 선구성에도 불구하고 사이드의 담론은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이분법의 반복이라는 딜레마에 봉착한다. 오리엔탈리즘 비판이 단순히 동양과 서양간의 우열과 위계를 뒤집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오리엔탈리즘의 논리에 도리어 갇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탈식민주의는 오랜 시행착오 끝에 식민주의의 이분법적 흔적이 완전히 삭제된, '오염되지 않은 이론'이란 존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는 현실적으로 '순수한' 탈식민주의 담론을 구성하기란 불가능하고, 지배세력에 의해 언어의 오염과 문화의 잡종성이 탈식민주의의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러한 논의 중에는 기존의 탈식민주의가 비판한 제국의 식민담론과 거기에 편입된 피식민지의 담론이 기존 논의와 같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제국의 식민지인 묘사 속에, 혹은 피식민지 담론 속에 저항적 요소가 내재해 있다고 보는 것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바(H. K. Bhabha)의 모방(mimicry)과 혼성(hybridity)논의³⁾와 애쉬크로프트(B. Ashcroft)의 식민담론의 폐기(abrogation)와 전유(appropriation)에 대한 논의⁴⁾이다.

한편, 이 주제에 대한 최인훈의 문제의식은 소설과 희곡에서 일관되게 추진되는데, 본고는 그 중에서도 소설에 논의를 국한시키고자 한다. 본고의 대상이 되는 작품은 『크리스마스 캐럴』과 『총독의 소리』 연작, 『하늘의 다리』, 『태풍』 등, 기존 최인훈 연구에서 주변부 작품으로 인식되던 작품들이다. 이를 위해 우선 최인훈 소설에 나타나는 탈식민주의적 인식을 분석하고(2장), 다음으로 이 작품들에서 문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제3자적 위치를 견지하는 지식인의 입장에 대해 지적하도록 한다(3장). 그리고 희곡에서의 발현양상은 맺음말에서 언급하도록 한다.

3) Homi K. Bhabha, *The Location of Culture*, Routledge, 1994 참조

4) Bill Ashcroft 외, 이석호 역, 『포스트콜로니얼리즘 문학이론』, 민음사, 1996 참조

2. 탈식민주의적 인식의 표출

탈식민주의적 인식은 우선 『회색인』의 주인공 독고준을 통해 드러난다. 그는 “애써도 추켜세울 수 없는” 허물어진 마음 속에 “회색의 의자”에 깊숙이 파묻혀 몽롱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만 한다. 그러나 그는 현실의 구도를 누구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정확히 서양 일색의 현실을 보고 있다.

우리는 서양 친구들이 밀어놓은 바윗돌을 밀어올리는 작업에 동원된 일꾼 같은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나마 바위에 손대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시지프의 영당을 밀고 있을 뿐이다. 어떤 친구들은 이걸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바위가 왜 이리 구리냐, 하고 물컹하냐, 하고 고민한다. 이것도 착각으로 받아들인 신화. 서양 사람들은 시지프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시지프가 아니다. 우리는 ‘시지프의 영당이 밀기꾼’쯤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괴로움은 시지프의 고결한 고통과 수난의 얼굴을 닮지 않고, 늘 어리둥절하고, 환장할 것 같고, 겸연쩍고, 쑥스럽고, 떤데하고, 엉겨주춤한 것이다.⁵⁾

그가 보기에 한국사회는 서양이 밀어놓은 바윗돌을 밀어올리는 작업에 동원된 일꾼, 다시 말해 ‘시지프의 영당이 밀기꾼’이면서도, 우리의 고민을 “시지프의 고결한 고통과 수난의 얼굴을 닮지 않”았다는 데 두고 있다. 서구의 경우 과거와 현재는 이어져 있으나 우리는 단절되어 있다. 저들은 “단단한 벽돌 위에 얹힌 풍차와 싸우고 있”되, 우리는 “허공 중에 거꾸로 매달린 허깨비”와 싸우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다.⁶⁾ 이러한 현실을 그는 한없이 계속될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경주’에 비유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처지는 아프리카 노예와 다를 것 없는 원주민이라고까지 확대된다.⁷⁾

「하늘의 다리」에서 분단 이후 한국이 대면하는 최대의 혼란으로 꼽는 것도 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 현실은 중요한 것을 잊고 가짜만이 판치는 세상이다. ‘예술’은 없고 ‘유행’만이 있다. 우리가 현재 가진 규범은 난데없

5) 『회색인』, 193면.

6) 위의 책, 15면.

7) 위의 책, 226면.

이 B29처럼 우리들의 하늘에 나타난 것이다. 이 생활의 범절, 이 문명의 족보를 켤 힘이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나머지 우리는 전쟁통에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낙하산으로 떨어지는 +자표 찬란한 구호 물자 상자가 떨어지는 낙하지점을 가늠”해서 떨어진 물자를 서로 들고 달아나기 바쁘다. 주인공 김준구가 전쟁이 끝난 지 한참 된 지금도 한국사회에 사는 사람들을 여전히 ‘피난민’이라 규정하는 것은, 이러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거대한 피난민들. 삼천만 명의 피난민. 50년대의 피난민. 60년대의 피난민. 70년대의 피난민.⁸⁾

김새-부엌 고층 건물과, 달리고 보자는 듯이 뻗친 길과 아귀아귀 뻗어가는 교외의 이 언저리의 북새판 같은 주택 붐과. (...중략...) 저 피난민 수용소에서 배급날마다 벌어지던 수라장 난장판-프티 부르주아의 체면이 걸레처럼 찢겨 나가던 그 판이 아닌가. 이십 년이 지났는데도 꼭 그 김새가 그 김새라니.⁹⁾

예전에는 전쟁통에 피난민임이 물리적인 사실이었다면, 현재는 서구의 영향권 하에서 그들의 문화, 문명을 답습하고 있는 정신적인 피난민이라는 인식이다.

한편, 『크리스마스 캐럴』과 『태풍』 『총독의 소리』는 본격적으로 탈식민주의를 주제로 하여 다룬 작품이다. 그 중에서도 앞의 두 작품은 지배자에 대한 피지배자의 모방이 그려져 있는 작품으로 주목된다. 『크리스마스 캐럴』은 아버지와 어머니, 옥이, 나로 이루어진 한 가족이, 크리스마스를 둘러싸고 벌이는 갈등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남들처럼 교회도 가고 즐기겠다는 옥이의 요구에 전통적인 유교 사상을 가진 아버지가 반대한다. 크리스마스는 ‘남의 나라 잔치’이며, 예수교인도 아니면서 교회에 나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¹⁰⁾ 그런가 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병사를 통해서도 서양 쫓아가기에 급급한 한국의 현실이 조망된다. 서구의 정신사적 분열이 자기 집안 일인 양 심각해하는 한국의 인텔

8) 「하늘의 다리」, 66면.

9) 위의 책, 98면.

10) 「크리스마스 캐럴」 I, II.

리는 “원주민 인텔리”라 지칭되고, 그들은 서구인들의 뒷치닥거리를 해주는 “양식 호텔의 보이”와 다름없다고까지 말해진다.¹¹⁾

그러나 하면, 『태풍』은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일본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또다른 아시아 식민지가 각각 나파유와 에로크, 아이세노딘으로 알려고리화되고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오토메나크 중위는 나파유의 식민지 에로크 출신이지만 대표적인 친나파유 가정에서 자라나 철저한 나파유 교육을 받은, 나파유 출신보다 더 나파유적인 군인이다. 그의 생각과 사고, 행동은 식민국의 그것에 다름 아니다. ‘아시아 공동체’라는 논리 하에 현재 수행되는 전쟁은 아시아를 서구 식민지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그리하여 에로크는 나파유의 침략 목적에 이바지하기 위한 식민지가 아니며, 에로크인이 하루 빨리 나파유 인이 되는 것이 진실로 에로크를 위하는 길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오토메나크는, 나파유 세력권인 아이세노딘에 주둔하며 임무를 수행하던 중, 아이세노딘의 식민지적 현실에 눈뜨게 된다. 즉, 과거 아이세노딘의 지배세력이던 니브리타 총독부의 비밀공간에서 니브리타가 아이세노딘에 행하는 전략과 술책을 담은 비밀문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며칠밤을 새면서 이것을 탐독한 오토메나크에게 이것은 에로크에 대한 나파유의 정책으로 유추되고, 그는 비로소 에로크와 나파유의 관계에 대해 눈뜨게 된다. 이와 더불어 그는 나파유군의 아이세노딘 학살장면을 목격함으로써, 나파유에 대한 철저한 신뢰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

밤마다 그는 절망했다. 문서의 한줄 한줄이, 오토메나크의 지금까지의 삶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너무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격이었기 때문이었다. 겉보기에 그토록 힘없는 아이세노딘 사람들의 얼굴은 아이세노딘의 얼굴의 반쪽일 뿐이었다. 다른 반쪽의 얼굴들은 분노하고 울부짖고, 배신하고, 뉘우침으로 흐느끼고 있었다. 그 다른 쪽에 그들을 찾아내어 고발하고, 회유하고, 타락시키고, 처벌하는 니브리타의 얼굴이 있었다.¹²⁾

최인훈 소설의 관념성이 전면화된 대표적인 예로 지목 받아온 『총독의

11) 『크리스마스 캐럴』 V, 『크리스마스 캐럴』, 169면.

12) 『태풍』, 111면.

소리』는 식민담론의 논리를 갈파하여 보여준다. 작품은 ‘제국’이라 지칭되는 일본이 한국에 지하비밀단체를 두고 한국을 식민지로 삼으려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가상 하에 전개된다. 이 연작소설의 매회 반복해서 나오는 다음의 어구는, 제국이 얼마나 반도에 대해 미련과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러한 미련과 사랑이 다름 아닌 제국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외견상의 번영에도 불구하고 내지는 병들어 있으며 제국의 정신적 상황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 제국은 종교를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국의 종교는 무엇인가? 식민지인 것입니다. 식민지는 무엇인가? 반도인 것입니다. 반도야말로 제국의 종교였으며 신념이었으며 사랑이었으며 삶이었으며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도는 제국의 영혼의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內地가 드러내고 있는 허탈, 도덕적 부패, 허무주의는 영혼의 비밀을 잃은 집단의 절망인 것입니다.¹³⁾

근래 한국에 보이는 국학회복 움직임이나 4·19 의거 같은 것은 제국에 심히 우려되는 바이며, 한국의 분단 상황은 제국에 몹시 유리한 것이라고 하는 말¹⁴⁾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식민지를 유혹할 때는 ‘말’을 내세워 코즈머폴리턴이 되고 식민지를 지배할 때는 ‘힘’을 내세워 착취한다는 귀축미영(鬼畜米英)의 이중성 비판¹⁵⁾ 역시 일본 자신의 논리에 대한 비판에 다름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서구에 비해 한국에 보다 천착된 논리로써 한국을 식민지화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식민주의는 양이적인 서양관의 극복과 더불어 근린 아시아국들로부터 일본을 구별하려는 자의식의 강화라는 두 가지 대외관으로 분열되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작품은, 아시아에 속하면서도 아시아와 차별을 꾀해야 하는 모순에 일본의 고심이 그만큼 심했다는 것, 일본의 발전이 서구와 마찬가지로 질서 있는 진화 과정을 밟아왔다는 증명과정에서, 일탈 또는 낙오한 이상(異常)계통으로서 선택된 것이 한국이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¹⁶⁾ 반도인의 근성

13) 『총독의 소리』, 81면.

14) 『총독의 소리』, 89~90면.

15) 『총독의 소리』, 80면.

은 역사적으로 노예근성이며, 일본 제국은 본질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¹⁷⁾

한편,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지적되는 한국의 서구 모방의 모습이나 『태풍』의 오토메나크의 중위의 자라온 행태 등은 바바가 지적한 피식민지인의 지배자 모방을 떠올리게 한다. 국가 체제상으로 서구에 의해 식민통치를 받지는 않지만,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서구의 절대적 영향 하에 주체성을 잃어가며 편입되어 가는 현실은 다름 아닌 탈식민주의의 형태이다. 그런데, 바바는 이러한 모방에서 식민지의 저항성을 찾고 있다. 그에 따르면, 식민담론이 주체(식민지배자)와 타자(피지배자)의 이분법적 대립, 그리고 후자에 대한 전자의 우월성에 기반한다고 할 때, 피지배자의 식민지배자 모방은 늘 부분적으로만 가능하고, 여기서 드러나는 결핍과 틈새가 모방이 기초하는 나르시시즘적 체제를 위협한다.¹⁸⁾ 즉, 주체가 타자에 대한 나르시시즘적 동일시에 의해 주체성을 정립한다고 할 때, 부분적이고도 왜곡된 모습의 피지배자의 모방에 의해 지배주체의 의도가 파열된다는 것이다. 또, 『태풍』에서 고발되는 식민국의 정책(아이세노딘이나 에르크에 대한 나파우의 정책, 또는 과거 아이세노딘에 대한 니브리타의 정책)은 이른바 ‘식민적 양면성’(colonial ambivalence) 개념을 상기시킨다. 즉, 모국에서 형성된 담론과 식민지에 이식된 담론 사이에는 매꾸어질 수 없는 틈새가 있다는 것이다. 역시 바바는 이것을 두고 이러한 틈새로 인하여 제국의 담론이 끊임없는 유실과 삭제의 위협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¹⁹⁾ 이러한 바바의 논의는 라캉의 정신분석학을 차용한 논의로서, 이것이 지닌 모호함으로 인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탈식민주의 논의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바가 있다. 그러나 본고는 이 같은 점에 천착하기보다는 위에서 다룬 최인훈의 작품들에서 보이는 극복방안과,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의식적으로 취하는

16)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전략에 대해서는 姜尙中, 이경덕·임성모 역,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1997, 78~109면 참조.

17) 『총독의 소리』, 69~81면.

18) Homi K. Bhabha, "Of Mimicry and Man: the Ambivalence of Colonial Discourse", 앞의 책, p.86.

19) 이경원, 「탈식민주의론의 탈역사성 : 호미 바바의 '양면성' 이론과 그 문제점」, 『실천문학』, 1998. 여름, 260~263면.

입장에 보다 주목해보려고 한다.

3. 제3자적 위치를 전지하는 지식인의 입장

위에서 살펴본 식민지적 상황에 대한 극복방안은 작품 속에서 두 가지로 암시된다. 『회색인』에서 ‘한없이 계속될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경주’로 요약되는 한국의 식민지적 상황에 대해 “거북이는 기를 쓰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먼저 주저 앉”으라는 방안이 언급된다.²⁰⁾ 그리고 이러한 방안은 등장하는 시간은 짧지만 이 작품에서 지도자적 위치를 차지하는 황선생으로부터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²¹⁾ 그는 한국 사회에 불교의 역할에 희망을 두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한마디로 그의 사상은, 동양이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서구를 따라 가려하지 말고 자신의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동양 사람이 제 구실을 하는 길은, 이 서양사적 문제 제기를 물리치는 일이야.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는 식으로 내밀어진 출제 방식 그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지. 우리들의 도식도 출제 방법으로 내세우는 것, 이것이 전통의 문제야.²²⁾

「하늘의 다리」에서 언급되는 되풀이성에 대한 강조²³⁾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보이는 불교적인 분위기의 환상 역시 우리 것을 찾고 유지하기 위한 효과를 낳기 위한 방법이다.²⁴⁾ 그러나 이것의 한계는 서론에서 지적한 대로 탈식민주의가 가지는 이분법적 한계 그대로이다.

이와 다른 또 하나의 태도는 『태풍』에서 암시된다. 식민주의적 현실에 눈떠 갈팡질팡하는 주인공에게 아이세노딘의 독립지도자가 던진 말이 그

20) 『회색인』, 227면.

21) 황선생에게서 보이는 한국 사회 비판에 대해서는 유종호, 앞의 평문, 75~77면.

22) 여기서 전통이란 것은 단순히 옛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흘러와서 지금도 살아 있는 정신의 틀, 즉 말(언어), 사상, 음악 등의 문화, 민족에 구현되어 있는 것이라고 부연된다.(『회색인』, 175면)

23) 「하늘의 다리」, 65면.

24) 조보라미, 「최인훈 소설의 환상성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9, 28~37면 참조.

것이다.

당신은 아이세노딘 사람이 될 생각은 없습니까. (...중략...) 당신은 얼마 전까지 자기를 나파유 사람이라고 믿고 있지 않았습니까. (...중략...) 당신은 아이세노딘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니브리타 사람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연이 다한 이름을 버리면 됩니다. 사람은 육체로서는 한 번 나는 것이지만, 사람으로서, 사회적 주체로서는 몇 번이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²⁵⁾

이는 나파유 사람, 애로크 사람, 아이세노딘 사람 등등으로 각자의 조국을 구분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어느 민족도 될 수 있다는 진술이다. 이후 오토메나크는 애로크인의 이름을 버리고 제3국인 아이세노딘인이 되어 그 나라 독립을 위해 헌신한다. 이는 데리다의 개념을 빌려 말하자면 ‘탈중심화된 주체’를 세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배 주체는 물론이고 저항 주체마저 해체해야 한다는 것은 그대로 구체적 실천에 적용되기 힘든 이론적인 허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 기존의 주체가 기반하고 있는 형이상학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 외면에 선다는 것은 논리적 무의미나 침묵의 입장에 선다는 것과 같다.²⁶⁾ 이러한 한계들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이 작품들에서 보다 문제적인 것은 식민 지배 논리와 식민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주체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된다.

『크리스마스 캐럴 I』에서 ‘나’는 유교 전통주의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아버지와, 서구 추수적인 누이 사이에서 중간자적 입장을 취한다. 아버지로부터 입장이 없음을 비난받을 정도로 주관을 보이지 않던 ‘나’는 그러나 점차 자신의 주관을 갖춘 인물로 변한다. 제국의 중심인 유럽에서 유학하면서 제국의 논리와 피식민국 논리 사이의 거리를 인식하는 것이다.(『크리스마스 캐럴』 IV) ‘나’는 새삼 ‘우리’에게 학문(이것은 물론 서구 학문을 뜻한다)을 하자면 외국어를 습득하여 문체의식에 접근하고 방법을 체화하는 등의 방식이 필요한 반면, 그들에게 있어 종교와 학문이란 그들의 생활과 감정 속에 녹아 있는 자연스러운 것임을 발견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렇게 열심

25) 『태풍』, 360면.

26) 이경원, 「저항인가, 유희인가? : 탈식민주의의 반성과 전망」, 『문화과사회』, 1995.5, 761면 및 767~768면.

히 체화하고자 하는 서양 학문이나 기독교가 이미 그들에게는 오랜 세월동안 익숙해져 생활의 모든 갈피마다 체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새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질감과 뿌리 없음을 깨닫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그는 귀국 후 자신이 할 일이 서구의 체화된 논리와 우리의 실상에 대한 틈새를 메꾸는 것이 자신이 할 일이라는 것을 어슴푸레 깨닫는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노력하면 할수록 서로 다름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인식되고, 그것은 늘 우리 현실에 걸돈다는 것을 느낀다. 그리하여 그것은 “식민지 인텔리의 천박성만이 꿈꾸는 관념”으로 여겨지고, “역사를 같이 하지 않은 인간들과는 다른 영혼의 성감대를 가진다”는 결론에 가까워진다.²⁷⁾

「하늘의 다리」에서 김준구는 일련의 경험을 겪은 후, 첫 장면부터 등장하는 끊어진 다리의 환상을 그림으로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심을 하면서 그는 자신이 가져야 할 입장을 발견하는데, 첫째, 환쟁이는 캔버스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 둘째,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만큼 끄덕없는 집념을 가지자면 바깥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²⁸⁾는 것이 그것이다. 캔버스와 팔레트와 손, 그리고 눈만이 그의 세계여야 한다는 이러한 결론은 위의 『크리스마스 캐럴』의 ‘나’가 그러한 현실을 관조하고 저의 논리로 서구와의 틈새를 정리하는 학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이 같은 상황은 『총독의 소리』에서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제국의 지하 방송을 듣는 시인이 등장하는데, “이 세상의 악의와 선의의 목소리를 알아” 듣고 있다는 표현에서도 드러나듯이, 그는 제국의 음모를 알아차리고 있다. 그런 그는 현실적으로 어떤 적극적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끊어진 다리를 이어놓기 위하여 돌을 나르”고, “역사가 부숴 놓은 마을을 말의 힘으로 불러내는 연금술을 발견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²⁹⁾ 그는 “파스와 세모 자와 함께 말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해소기침을 앞으면서” “불면제”를 먹어가며 “말을 건설”하고 있는 인물로 그려진다.³⁰⁾

이러한 태도는 이들이 학자(『크리스마스 캐럴』 IV)나 시인(『크리스마스

27) 『크리스마스 캐럴』 IV, 117~118면.

28) 「하늘의 다리」, 116면.

29) 『총독의 소리』, 101~102면.

30) 위의 책, 164~165면.

캐럴』 V, 『총독의 소리』), 미술가(『하늘의 다리』) 등 예술가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이들은 세속에 뛰어들어 그것에 동화되거나 적극적인 비판을 개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세속 밖에 머물러 외면하지도 않은 채, 한 발짝 떨어져 제3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이들 주인공이 취하는 입장은 『광장』과 『서유기』의 주인공이 분단상황에서 취했던 중간자적 입장과 유사하다.

최인훈 소설에 있어 현대 한국 현실의 문제점은 분단과 서구화(이것이 식민화와 통한다는 것은 위에서 살펴보았다)로 크게 요약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한국 상황에서 본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남북 이데올로기 대치로 인해 분단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것이 서구 열강의 논리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이렇게 볼 때 분단은 한국에 있어서 식민화의 특수한 형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인훈의 소설 속에서도 이 두 가지 문제는 착종되어 다루어지는데, 이것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점에 있어서는 작품들 간에 차이가 있다. 즉, 『광장』과 『서유기』는 전자의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고, 본고에서 다룬 소설들은 후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소설들의 주인공이 취하는 입장은 사이드가 이야기한 ‘경계지식인’(border intellectual)을 떠올리게 한다. 경계지식인은 ‘세속 비평’(secular criticism)을 지향하는데, 여기서 ‘세속비평’의 핵심적인 개념이 ‘고향없음’(homelessness)이다. ‘고향없음’이란, ‘고향’이라는 기왕의 헤게모니적 문화에 지배당하지 않고, ‘고향’이 뜻하는 이념적 경계를 넘어서 소속이 주는 안정감을 자발적으로 이탈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계지식인은 또, 체제 내에 속하면서 그것의 존립 유지에 기여하는 지식인이 그가 속한 세계에 대한 텍스트 내적인 관심에 치중하는 것과 달리, 이들에 의한 생산을 ‘오염과 속박’으로 보고 이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담지하고자 한다.³¹⁾ 이것은 한편으로, 제3세계 출신으로서, 억압받는 제3세계의 가치에 일정한 공감함을 표시하면서, 제국주의의 중심에서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사이드

31) Abdul R. JanMohamed, "Worldliness-Without-World, Homelessness-As-Home : Toward a Definition of the Specular Border Intellectual", *Edward Said-a Critical Reader*, ed. Michael Sprinker, Blackwell, 1992., pp.110~104. 여기에 있어서 용어의 번역 문제는 재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경계지식인은, 경계에 위치하여 긴장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서구의 체제 내에서 서구의 전통적인 논의의 지평을 변경시켜 새로운 지평을 꾀한다고 하겠다.³²⁾

『광장』과 『서유기』의 주인공은 한국의 분단 현실을 정중앙에서 체험한다. 이들은 각각 남도 북도 아닌 제3세계를 택하거나, 정신적 상처를 치유기 위해 이남에서 고향인 이북으로 환상여행을 떠나나 되돌아온다. 이 사실은 주목을 요하는데, 이것은 이들이 어떠한 쪽에도 소속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제3의 공간에 위치하려 한다는 것이, 헤테로토피아적인 공간을 지향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³³⁾ 더 나아가 이 두 작품의 주인공들은 헤게모니를 가진 지배적 문화로 하여금 망명자의 구조와 기능을 비추어 보도록 하는 거울의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⁴⁾ 한편, 식민화 문제를 다룬 작품들의 주인공들은 경계지식인의 위치에 선다고 파악할 수 있으나, 이들이 반영적인 역할까지를 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는 위에서 지적한 두 문제 사이에 위상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식민화의 문제는 같은 식민주의적 비판의 관점이면서도 한국사회 일반에 대한 추상적인 비판 인식의 관점에서 있다고 한다면, 분단상황은 식민주의의 특수한 상황이면서도 주인공(및 작가)의 태생과도 관련되어 그의 존재 자체에까지 영향이 미쳐 있기 때문이다.

4. 남는 문제 - 탈식민주의적 글쓰기의 전유

최인훈의 탈식민주의적 글쓰기와 관련하여 남는 문제는 그의 회곡에서의 추구 문제이다. 탈식민주의적 텍스트가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32) 고부웅, 「에드워드 사이드 : 변경의 지식인」, 『현대시사상』, 고려원, 1996. 봄, 95~97면.

33) 경계지식인은 탈중심화되고 유랑하는 활력을 내포하여 푸코가 이야기한 ‘헤테로토피아’를 암시하기도 한다.(강상중, 앞의 책, 197~198면; E. W. Said, 김성곤·정정호 역, 『문화와 제국주의』, 창, 1996, 제4장 3절 참조)

34) 사이드는 이것을 ‘반영적’인 기능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글쓰기를 통해 서양문화로 하여금 망명자 자신이 가진 구조와 기능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거울을 제공한다는 의미이다.(Abdul R. JanMohamed, 앞의 논문 참조)

언어라고 할 때, 지배국의 언어 사용권을 대상으로, 피식민국의 문학에 나타나는 언어 사용 양상을 고찰하는 논의가 있다.³⁵⁾ 여기에서 사용되는 것이 ‘폐기’와 ‘전유’의 전략인데, 전자는 모어(母語, 지배국의 언어)가 가진 체계 모니를 거부하는 것이고, 후자는 자신의 문화적 경험을 전달하는 독특한 방식을 창안하는 것이다. 이 둘의 관계는 수단과 목적의 관계로 설명되는바, 목적에 해당하는 ‘전유’가 더 중요한 현상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유의 민족어로 다른 언어로 번역이 불가능한 말이나 방언을 사용하는 것, 또는 설화나 독특한 문화를 작품 내에 설명 없이 쓰는 것 등, 자국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는 해석 불가능한 방법을 창조하는 전유의 방법은, 최인훈 문학을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할 때 유용한 점이 있다.

최인훈 소설에서 『구운몽』, 『춘향뎐』, 『금오신화』, 『서유기』, 『열하일기』 등과 같이 설화 및 고대소설에서 소재를 취한 점, 『눌부던』에서 보이듯 판소리 어투를 취한 점 등이 그것이다.³⁶⁾ 이러한 시도는 소설의 경우 이렇게 작품의 형식에 대한 새로운 모색과 관련이 있다. 한편, 1970년대부터 시작된 희곡 창작은 최인훈의 이러한 문체의식이 본격화된 것이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둥둥 낙랑둥>, <옛날 옛적에 휘어이 휘어이>, <달아 달아 밝은 달아>의 작품은 각각 은달-평강 공주 설화, 낙랑-호동의 설화, 아기장수 설화, 심청전을 소재로 하고 있다. 또, 정제된 언어와 운율감 있는 언어 사용은 한글의 독특한 미 창조에 대한 의도가 있음을 추측케 하며, <달아 달아 밝은 달아>의 경우 판소리 어투를 사용함은 물론, 장면묘사에서 판소리와 관련된성을 뚜렷이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고찰은 차후의 작업으로 남기도록 한다.

35) Bill Ashcroft, 앞의 책 참조.

36) 이렇게 60년대에 일군을 이룰 정도로 다양하게 발표된 최인훈의 작품들이 고전에 서 제명(題名)을 취한 점을 두고, 서구 소산의 관념과 우리 풍토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매우고 극복하느냐는 작가의 진지한 모색의 궤적이라고 평가한 지적도 이미 있었다.(김성렬, 『최인훈의 <구운몽>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84)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최인훈,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문학과지성사, 1976.
_____, 『옛날옛적에 휘어이 휘어이』, 문학과지성사, 1979.
_____, 『총독의 소리』, 문학과지성사, 1980.
_____, 『크리스마스 캐럴/가면고』, 문학과지성사, 1976.
_____, 『태풍』, 문학과지성사, 1978.
_____, 『하늘의 다리/두만강』, 문학과지성사, 1978.
_____, 『회색인』, 문학과지성사, 1977.

2. 국내논저

- 고부용, 『에드워드 사이드 : 변경의 지식인』, 『현대시사상』, 고려원, 1996 봄.
김성렬, 『최인훈의 <구운몽> 연구』, 고려대 석사, 1984.
김치수, 『지식인의 망명—<회색인>·<서유기>를 중심으로』, 『문학과지성』, 1971.9.
민승기, 『바바의 모호성』, 『현대시사상』, 고려원, 1996 봄.
오경복, 『<심청전>과 <달아 달아 밝은 달아>에 나타난 재생 원형 연구』, 이화여대 석사, 1980.
유종호, 『소설과 정치적 함축—<광장>과 <회색인>의 경우』, 『세계의문학』, 1979. 가을.
이경원, 『저항인가, 유희인가? : 탈식민주의의 반성과 전망』, 『문학과사회』, 1995.5.
_____, 『탈식민주의론의 탈역사성, 호미 바바의 ‘양면성’이론과 그 문제점』, 『실천문학』, 1998. 여름.
이승렬, 『분신의 정치학—스피박의 탈식민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읽기』, 『현대시사상』, 고려원, 1996. 봄.
조보라미, 『최인훈 소설의 환상성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9.
홍진석, 『최인훈 회곡 연구』, 태학사, 1996.

3. 국외논저

- Ashcroft, B. 외, 이석호 역, 『포스트콜로니얼리즘 문학이론』, 민음사, 1996.
Bhabha, H., *The Location of Culture*, Routledge, 1994.
Said, E. W., 김성곤·정정호 역, 『문화와 제국주의』, 창, 1995.
_____,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1991.
Sprinker, M.(ed), *Edward Said—a Critical Reader*, Blackwell, 1992.
姜尙中, 이경덕·임성모 역,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1997.